

‘광주정신’의 흐름...웅장한 서사로 풀어내다

CULTURE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정지 장군부터 한강 작품까지 차별없는 ‘무등’ 의미 되새겨 아트주, 대형 미디어아트 공개 내달 2일 CGI서 1시간 공연 무용수 춤·음악 라이브 구현

무등산의 탄생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주정신의 흐름을 응징하고 깊이 있는 서사로 풀어내는 미디어아트가 제작돼 공개된다.

사회적 기업 아트주(대표 정현기)는 (재)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으로 대형 미디어아트 작품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를 제작, 5월 2일 광주 남구 송하동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CGI)에서 한차례 공연을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1년에 걸쳐 제작된 대작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는 총괄기획에 정현기 대표, 총연출에 수원 화성 파사드 등을 구현해낸 바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신도원씨가 총연출을 맡았고, 음악감독에 이한주씨가 작곡을, 무용에는 마코유니버스 무용단(무용수 8명)이 각각 참여했다. 분량은 1시간, 춤(군무)과 음악 모두 라이브로 구현된다.

광주정신이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머니산인 무등산을 빼놓는 이야기될 수 없다. 700만년 전 화산폭발로 생겨난 무등산은 당시 바다에서 솟구쳐 뜨거운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굳어지면서 주상절리와 같은 독특한 지형을 형성했다는 것이 관례다. 이런 탄생 과정은 마치 고난과 시련 속에서 피어난 광주 사람들의 저항과 혁명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무등산은 지리적으로 우수해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의미로 ‘무등’이라 자명했으나, 동시에 모든 사람을 차별없이 품는 평등의 정신도 내포하고 있



1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 이미지
2 28일 진행된 대형 미디어 작품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 설명회 모습. 앞줄 왼쪽부터 정현기 대표, 신도원 연출자.



다. 이 평등 정신은 광주 사람들의 정신적 토양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가운데 무등산 자락에서 성장한 고려시대 4대 무장인 정지 장군을 중심으로 초입부가 펼쳐진다. 정지 장군은 무등산이 상징하는 ‘등급 없는 평등의 정신’과 공동체 중심의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했다. 이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역과 나라를 함께 지키려는 행동과 정신적 기반이 됐다. 정지 장군이 세운 호국의 정신은 조선 임진왜란 당시 김덕령 장군과 이순신 장군에게로 이어지며 의병정신으로 재정의됐고, 이후 현대 광주민주화운동

으로 진화했다.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에서는 정지 장군이 ‘호국’의 기틀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리고 ‘호국’이 광주정신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생생히 전달한다. 이어 임진왜란 당시 억울한 죽음을 역사에 비극을 남긴 김덕령 장군의 영웅적 삶을 다루며, 민중의 저항정신 역시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6막에 걸쳐 담았다. 한강의 작품 주무대인 광주 5·18 항쟁의 주요 공간의 한곳으로 군현기 사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전일빌딩245 부분이 제시된다.

먼저 1막 ‘광주의 탄생’에서는 무등산의 탄생설

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2막 ‘정지 장군의 노래’에서는 정지 장군의 정신과 공을 담았다. 3막 ‘김덕령 장군의 노래’에서는 정지 장군의 정신이 김덕령 장군에게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살피고, 4막 ‘임진왜란’에서는 정지 장군과 김덕령 장군의 활약을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5막 ‘이별의 노래’는 역사 속에서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영웅들에 대한 애도의 장으로 그려지며, 6막 ‘광주여 희망이여’는 현대에서 ‘광주정신’이 어떻게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자 핵심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희망과 연대의 정신으로 확장되는지를 담고 있다. 각 막은 다양한 시대와 상황을 서정적이며 다채로운 시각 언어로 표현한다. 또 각 막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호국정신과 민중의 저항을 음악과 무용, 현대적 미디어기술을 활용해 몰입도 높은 경험으로 제공한다. 특히 작품 속 음악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실험적인 시운도로 역사의 서사를 더욱 풍부하게 표현했다.

발표회가 열린 광주실감콘텐츠부 VX스튜디오는 총고 5m 이상의 웅장한 공간을 갖춘 아시아 대표 시각효과(VFX) 제작 스튜디오로, 관객들이 생생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고성능 렌더팜(Render Farm) 시스템, 디지털 색보정실(DI), 음향제작실 등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어 완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미디어아트 영상과 함께 전문 무용수들의 현대적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시각적, 청각적, 감성적 요소가 하나로 융합된 신개념 종합 예술이 펼쳐질 예정이다.

정현기 아트주 대표는 “정지 장군은 해군의 시초를 열었던 장본인이다. 이런 것만 봐도 이 지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연출자가 정지 장군 묘소까지 방문해 3D로 스캔을 해서 현장감을 극대화했다”면서 “이번 시연이 끝난 뒤 반성을 보고 나서 여력이 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시연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 VX스튜디오 버추얼익스텐디드라는 실감 촬영 스튜디오.

▷ 렌더팜 고성능 컴퓨터(렌더노드)들이 모여 하나의 장면을 병렬로 렌더링하는 시스템. 여기서 렌더링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2D 또는 3D 모델에서 사실적인 이미지 또는 사실적이지 않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죽지 않고 돌아온 각설이’...전자음악 결합 현대판 품바

전문화전당, ‘애호가 편지’ 연계한 ‘죽지 않고 또 왔네’ 공연 내달 4~5일 복합전시2관 중앙홀...테크노 각설이 시시 협연

각설이 품바 문화를 젊은 감성으로 재해석한 무대가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전시 ‘애호가 편지’와 연계한 공연 ‘죽지 않고 또 왔네’를 오는 5월 4~5일 복합전시2관 중앙홀에서 연다.

지난달 개막한 ‘애호가 편지’는 트로트와 아시아 뽕짝이 보여주는 도시 풍경을 주제로 한 매체 예술 전시다. 오는 8월 24일까지 복합전시2관에 열리며, 5개국 13팀의 작가가 참여한 상호작용 예술, 키넥트 설치, 로봇 등 다양한 기술과 매체로 표현된 작품 14종을 선보인다.

‘애호가 편지’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죽지 않고 또 왔네’ 공연은 오랜 전통을 지닌 서민 문화지만 주목받지 못한 ‘각설이’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또 수백 년 간 가장 낮은 곳에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각설이를 재조명하고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명맥을 잇는다.

장터에서 옛가위와 북을 치는 난장 각설이 오동팔과 클럽 무대에서 디제잉을 하는 테크노 각설이 시시의 협연이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각설이 품바

문화를 현대 전자음악과 결합해 젊은 감성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공연은 ‘애호가 편지’ 전시 참여 작가 윤결 작가가 각설이 품바를 기록한 영상 작품 ‘소릿가 열린다’를 통해 역사 속에서 배제된 소리와 존재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현재 많은 관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애호가 편지’ 전시에서 윤결 작가는 각설이 품바를 기록한 영상 작품 ‘소릿가 열린다’를 통해 역사 속에서 배제된 소리와 존재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작가 테크노 각설이는 한국의 트로트와 뽕짝, 태극의 모험, 베트남의 비나하우스 등 아시아 음악의 리듬을 재조합해 관객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드는 상호작용 작품 ‘트랜스로컬 댄스 마차’를 선보인다.

작가 빠키는 원색 패턴을 조합한 설치물, 조명, 미러볼로 구성된 ‘땀따라-땀따’ 키넥트 작품을 전시하며 트로트가 가진 정교 한의 정서를 재해



테크노 각설이 ‘트랜스로컬 댄스 마차’

석한다.

직접 만든 독특한 전자악기 ‘난센스 마신’으로 유명한 작가 메이와텐키는 가수 이박사와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로봇 ‘메카트로트’를 통해 영동하면 서도 유쾌한 아이디어로 도시민의 결핍을 보듬는다. 또 한국대중음악상을 수상한바 있는 뮤지션 모과는 플라테를 재현한 작품 ‘짜의 기본’으로 현대 전자음악과 사교음악의 관계를 조명한다.

이외에도 일렉트로니코 스파타스티코스의 ‘전자선물기 하프: 빛과 그림자의 음계’ 작품은 서민의 정서가 묻어있는 선물기

를 악기로 되살려 새로운 관계와 문화를 창조하는 작품세계와 트로트의 연관성에 주목한다.

‘애호가 편지’ 전시와 ‘죽지 않고 또 왔네’ 공연은 모두 무료로, 자세한 사항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d194@gwangnam.co.kr

‘AI 시대’ 자녀를 위한 현명한 디지털 안내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내달 7일 특강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청자미디어재단 창립 10주년(5·15)을 기념해 학부모 대상 특별 강연을 오는 5월 7일 오후 7시 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자녀들이 직면할 미래에 대한 대비와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디지털 원주민’인 자녀와 달리, 새로운 미디어 환경 이해 및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디지털 이주민’인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센터는 학부모가 먼저 인공지능 시대를 이해하고, 자녀가 안전하고 창의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



고자 이번 특강을 기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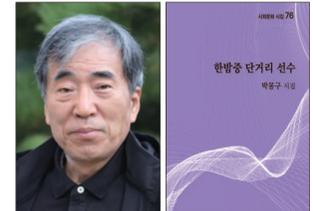
강연은 류지현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교육문제연구소장·사진)가 맡는다.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디지털, 실감미디어, AI 융합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온 류 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 AI 융합시대의 디지털 교육 방향과 청소년 진로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연은 별도의 사전 예약이나 참가비 없이 현장에서 바로 참여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플랫폼 노동자 등 소외된 사람들의 삶 조명

‘5월시’ 동인 박몽구 시집 ‘한밤중 단거리 선수’ 펴내 따스한 공동체 복원 기원



‘5월시’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재)한국출판연구소에 재직 중인 광주 출생 박몽구 시인이 시집 ‘한밤중 단거리 선수’를 시와문화 76 번째 권으로 펴냈다.

이번 시집은 우리 사회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조명하고, 우리 사회가 이들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며 함께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대두된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고용과 노동 형태의 변화는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꿔놓고 있는 가운데 겉으로 구가하고 있는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심각한 정신적 빈곤의 모습을 노출하기도 하고,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계층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시인은 우리 사회의 이 같은 새로운 사회·문화 양상이 펼쳐지는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한편, 그 이면에 은폐된 반인간적인 상황의 원인을 무엇인지 성찰하고 있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해 가고 비인간화돼 가는 양상을 치유하며, 밝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시 작업을 통해 구체화해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를 바로잡으려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시를 빌려 말한다.

현장을 중심으로 만나는 우리 사회의 꾸밈없는 얼굴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것을 따스한 공동체의 정신으로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인지를 시라는 그릇에 오롯이 담고 있다.

이번 시집에는 표제적인 ‘한밤중 단거리 선

수’를 비롯, ‘길모퉁이 뽕집’, ‘당인리를 지나며’ 등 60편의 시가 수록됐다.

오현정 시인은 시 ‘당근, 별이 빛나는 밤’에 주목했다. ‘당근 마켓에서 단돈 3천원에 산/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 퍼즐 맞추며/ 갖 뽕계 당근 속 동심원이며/ 파란 양배추 색깔을 그대로 옮긴 게 아닐까/ 몇 번이고 한참씩 들여다본다’라는 시편을 통해 당근 마켓에서 산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 퍼즐 맞추기에 대해 화자가 배가 고파서 먹으려던 당근 속 동심원이기도 하고, 파란 양배추이기도 하다’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 미치광이처럼 물감을 덧칠하며 생의 허기를 달래고 고흐와 화자의 꿈을 대비시킴으로써 예술가로서 최고의 미학을 작품에서 이루고 싶은 공감대가 저절로 형성된다”고 평했다.

박몽구 시인은 1977년 당시 대표적인 시사전문지 ‘월간 대화’로 등단. 전남대 영문과와 한양대 대학원 국문과를 졸업했다. 시집으로 5·18광주민주항쟁을 다룬 ‘십자가의 꿈’, ‘단단한 허공’, ‘5월, 놀린 기억을 떠나’, ‘라이더가 그는 직선’, 연구서 ‘1950년대 모더니즘 시와 전후 현실 인식-조항과 박인환의 시를 중심으로’ 등을 펴냈다. 한국작가회의 시인과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순천향대 객원교수와 한양대 겸임교수를 맡아 교육계도 한때 몸 담았다. 현재 도서출판 시와문화 대표이자 (재)한국출판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